

SHAVUOT



샤부옷

오순절/칠칠절/맥추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9]

샬루 샬롬 예루살라임 이쉬라유 오하바이크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ey prosper who love you."*

교회 중보기도 제목

1. 한기홍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충만, 말씀의 능력 및 시대적 사명 감당, 영적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도록
2.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세계 선교사역을 위해 (한국에서의 사역을 위해)
3. GMI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영적 생활을 위해)
5. 3차 일천번제와 Bible Time QT 에 전 성도가 동참하여 은혜 받으도록
6.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 새벽예배를 통해 가정마다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7. EM 과 교육부를 위하여
8. 대한민국과 미국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9.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과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폐지 되도록



일천번제

4/19/21~1/13/24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

GMI 선교지 기도제목

사역	사역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민 선교사님(사할린) 2기 사할린 신학교훈련원 위해 /체류신분 - 장기비자 /지경선교사 건강위해서 Covid19 휴유증(폐, 심장, 신장) 치유 회복되도록 ● 박경덕 선교사님(태국) 보플러이 지역 영혼들을 위해 / 3명의 신학생을 위해 / 가족들을 위해 ● 오판석 선교사님(알바니아) 개척교회 사역 / 새로 만난 영혼들을 위해 -복음전파와 한글 수업 등 	<p>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 계시는 4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 사태 진정과 인권 유린 및 살상을 그쳐지도록 ● 고난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 ● 전쟁과 박해가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 최 00 선교사님(타지스탄) 건강을 위해 / 몇 만평을 땅을 개간하여 한국 배를 심으려고 합니다(400여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직 선교사님(C국) - 스텐스 두개 수술했고 경과를 보면서 추가로 심장 스텐스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과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내팔 이에신 선교사님- 지난 9개월 동안 앓았던 악성 림프암의 6차 항암 결과 모든 림프암 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항암제도 없는 혈액암은 그대로 있게 하셔서 날마다 체 날수를 계산하며 전능자만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첼라빈스크 김봉년 선교사님- 5월 11일부터 7주간(주 5일)전립선 암 방사선치료를 합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 터키 양창모 선교사님- 파킨스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으도록 ●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님- 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 베트남 강 00 선교사님- 작년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끌어져서 쇠골에 핀을 받게 되었는데 쇠골이 속히 붙어서 핀을 제거하고 재혈을 통해 건강과 일상이 회복되기를. ● 알타이 최정진 선교사님- 걸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5 월 미국을 위한 기도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제도가 왜곡되고 도전 받는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제도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2. 전국 곳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 포괄적은 LGBTQ 보호법안이 평등법 (Equality Act) 이라는 이름으로 연방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의원들이 불의한 법안들을 막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안들만 통과시키게 하옵소서 (금년에 출범한 연방의원 중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힌 의원들이 468 명, 88.1%입니다. 개신교 294 명, 천주교 158 명, 그리스정교 7 명, 몰몬교 9 명 그외 유대교 33 명, 모슬렘 3 명, 불교 2 명, 힌두교 2 명).
4. 하나님을 아는 분들로 구성된 연방대법원 판사들(천주교 6 명, 유대교 2 명, 개신교 1 명)이 성경과 헌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결을 하게 하옵소서.

- 미 개신교 목회자 4 명 중 3 명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 아이다호 주지사, 낙태 지원자금 금지법 서명: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낙태 홍보 및 시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그들이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 미 복음주의 루터교회, 트랜스젠더 주교 선출...주류교단 사상 최초
- 성경번역 캠페인 CEO, “2033 년까지 모든 언어 번역” 목표
- 한인교회들, 대면예배 전면개방해도 온라인예배 병행
- 국무부, 중국·북한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 지정: 미 국무부가 12 일(현지시각) 공개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중국과 더불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으로 지정하고,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 로드아일랜드 주택가서 총기난사, 9 명 부상
- 폼페이오 “종교 자유 공격에도 신앙 포기하지 말라”
- 미국, 힌두사원 건설에 강제노동 시킨 인신매매 조직 적발
- 도로 한복판서 어린애 숨진채 발견
15 일 오전 5 시 30 분(현지시간)께 미국 텍사스주 맬러스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유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NBC 방송이 보도했다.
- 미국, 기독교계, 중동 평화와 안보 위한 ‘세계 기도의 날’ 지정: 미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위해 16 일 주일을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중동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콩그레스 오브 크리스천 리더스(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조니 무어 대표와 전미 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콘퍼런스 사무엘 로드리게스 회장은 15 일 “우리는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희생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국교회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2.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거룩한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며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4. 통일된 남북교회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5. 대한민국에 확장되고 있는 반기독교 세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재압 되게 하옵소서.
6.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의 죄악과 우상과 거짓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7.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모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거룩과 순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8. 성령님!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쓰임 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한국 땅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1. 북한 동포들 위에 긍휼을 베푸시고 북한에서 공산 독재체제가 붕괴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북한 지하 교회에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3.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북한 땅 전역에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 북한에서 개발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이 이란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 주시고, 비핵화가 전쟁 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5. 남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통일을 이루며, 함께 주를 찬송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6. **생활고로 흉악범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과 김정은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북한 백성들이 알게 해주옵소서.
7.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북한 영혼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침묵의 신앙'으로 가족들 간에 은밀히 신앙을 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 일 보도했습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은밀하게라도 신앙을 전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통해,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시고, 북한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 2033년까지 모든 언어 번역

세계 성경 번역 단체들의 연합인 일루미네이션스를 지원하고 있는 마텔 크리스찬&에듀케이션의 설립자 겸 CEO 인 마트 그린(Mart Green)이 2033년까지 성경을 모든 알려진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고 11 일 기독교일보가 전했다.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 공동체는 3800 여 곳이며, 이들 중 2000 여 곳은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 구절도 갖고 있지 않다.

• 통합 충격 예측, “한국 주일 학교의 위기”

한국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예상 통합총회가 매년 발표하는 교세통계를 인용,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전했다.

- 예정합동 지난해 11-12 월, “주일학교 부서 없다” 22.4%
- 코로나로 심화된 위기, 유초등부 출석회복률 30~40%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 북한, 종교활동하는 주민들 처형, 고문 여전

미국 국무부가 지난 12 일(현지시간)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2020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발표하고, 북한에서 거의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체포돼 처형, 고문당하는 가혹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종교탄압을 비롯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12 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북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 제기해야
-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도 우려 사안
- 코로나로 국경 봉쇄, 기독 선교단체 구호품 통제



월
방

- 태국 교도소 코로나 확진 5000 명 육박...한 방 60 여명 생활
- 민주콩고, 무장단체 충돌에 수천명 피란길
- 멕시코-미국, 마약 무기밀수 방지 공조 시작
- 유엔, 이-팔 충돌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위기 경고... 팔 주민들의 시위로 촉발
- 계엄령 인간방패까지...미얀마군 친주 소도시 계엄령
- 인도 갠지스강 CCTV 설치 화장비 지원
- 중국 군용기, 5 월 들어 대만 침공 9 번째
- 2019 년 강제 복송된 목선 탈북민 2 명, 바로 처형돼... 북 사상교육 자료 수록
- 영국, 경멸 담긴 반유대주의 시위... 정치권 “인종차별 행위, 용납 안돼”
- 디즈니,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동성 커플 부모 등장... 존 맥아더 “동성 파괴 행위”



미국, 기독교계, 중동 평화와 안보 위한 '세계 기도의 날' 지정

미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위해 16일 주일을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중동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콩그레스 오브 크리스천 리더스(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조니 무어 대표와 전미 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콘퍼런스 사무엘 로드리게스 회장은 15일 “우리는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희생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동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팔레스타인인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으로 이 지역에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지난 10일 하마스 무장세력이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시작해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52명과 여성 31명 등 최고 181명이 사망하고 122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Times of Israel)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지난 10일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30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무어 대표는 예루살렘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복음주의자들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이란의 테러 지지자들에게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삶을 잠시 멈추었다.”며 “우리 공동체는 테러리스트들에게서 나오는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를 뒤로 미뤄놓고, 강박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 주일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마이 페이스 보우츠(My faith Votes)’ 제이슨 예이츠(Jason Yates) 대표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지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동맹국이자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기념한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국민적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국내외 어떤 형태의 테러리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동예루살렘의 분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바이든 부통령의 행정부 특사는 이스라엘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16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논의했다. CP에 따르면, 예루살렘 국방부 관리들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베니 간츠 국방장관을 압박해 이스라엘 방위군 작전을 마칠 수 있는 휴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휴전에 앞서 건물 내 민간인들에게 경고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베이다 하마스군 대변인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겨냥해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텔아비브와 센터 주민들은 반드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담을 갖고 긴장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또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죽음과 언론인들의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의 방어권 지지를 재확인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에 관한 언론의 소식들을 듣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알려지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공격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주요 언론들이 집중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민간인 사망이 발생했다는 것과 언론사 건물을 폭파시킨 사건에 대해 중점 보도해 이스라엘의 공습이 비열하다며 비난하고 나설 뿐입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며, 테러조직들이 더이상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빼앗지 못하도록 중보합니다.
- 희생된 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국 교회들과 함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분열로 얼룩진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은 칼을 겨누고 있는 원수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하여 죽으신 생명의 복음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깨닫고 이미 한 몸된 지체인줄 알아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스라엘 뉴스

Jerusalem post

Ahmed Bahim Khatib/Flash90



☆ 지난 월요일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시작되면서, 가자지구에서 로켓 3,150 발 이상이 이스라엘로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10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과 주일 아침 내내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서 300 발의 발사체가 발사되었으며, 폭탄 대피소로 달러가는 동안 10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10 명 사망, 300 여명 부상; 팔레스타인은 197 명 사망, 1300 여명 부상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들에서 폭력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드에서는 아랍인들이 회당에 불을 지르고 차량을 파괴해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으나, 극우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폭력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셰이크 자라 동예루살렘 인근 경찰 검문소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7 명의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드 지역에 사는 유대인도 아랍 폭동에서 머리에 돌을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미완공된 유대교 회당에서 16 일(현지시간) 종교행사 도중 조립식 관람석 철골 구조물이 붕괴해 최소 2 명이 숨지고 184 여명이 다쳤으며 이들 중 5 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Google.com

오순절 저녁, 기브앗 제에브 회당 계단 붕괴돼 백여 명 부상



주일 현지시각 20:00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기브앗 제에브에 있는 회당 계단이 붕괴되면서 132명이 부상 당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중 5명은 심각한 상태이며, 2명은 사망했다.

오순절이 시작돼 회당에 수백 명이 모여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서 있던 계단이 무너져 사람들이 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회당은 그동안 공사 중이었으며, 경찰은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라고 발표했다.

5월 1일에 있었던 메론산에서의 참사와 유사점이 많다. 회당 입구의 비좁은 도로, 회당 안에 빼곡히 가득차 있던 사람들, 사람들이 서있던 곳은 뒷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도록 계단식 스탠드로 만들어져 있었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바이든, 네타냐후, 미국과 이집트와 휴전 가능성 논의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이집트 및 다른 파트너들과 미국의 개입에 대해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주 Guardians of the Walls 작전이 시작된 이래 두 지도자 간의 세 번째 대화였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무차별 로켓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통령은 공동체 간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환영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은 하마스와 가자 지구의 다른 테러 집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이집트 및 다른 파트너들과 미국의 개입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그들과 그들의 팀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안토니 블링켄 미국무 장관은 일요일과 월요일에 이스라엘 외무 장관 인가비 아슈케나지와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UAE, 사우디 아라비아, 튀니지, EU의 관리들을 포함하여 지역의 여러 고위 관리들과 상황을 논의했다. 아슈케나지와 의 대화에서 블링켄은 "아이들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을 종식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하마스의 PROPAGANDA”

‘프로파간다’는 선전이라는 단어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테러리스트를 향해 공격하지만, 하마스는 여자와 아이들의 희생을 주도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이들을 이용한다. 하마스는 무고한 희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여론형성을 일으키는 악한 계락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샤부웃과 오순절

-아체르 인트레이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시나이 산에서 토라를 주신 때가 샤부웃(칠칠절)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온산에서 성령을 주신 때가 오순절 절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날은 같은 날입니다. 하나는 음력이고 하나는 양력을 따른 것입니다. 둘의 연관성을 이해하면 커다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샤부웃은 말 그대로 “7 들” 그러니까 7x7=49 를 의미합니다. 반면 오순절은 50 이라는 뜻이죠. 둘은 유월절에 시작된 오메르 계수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1 에 나오는 토라를 주신 날짜는 “셋째달”이라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에 날짜 계산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간의 연관성은 충격적입니다. 시나이 산에서는 여호와와 사자가 임재한 가운데 불과 번개 속에서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는데” 마치 제자들이 메시아 예슈아께로부터 임하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출 19:18~19, 20:18, 행 2:1~4).

심지어 랍비 전통에 따르면 시나이 산에서 히브리어로 토라를 주셨지만 거기에는 세계 열방을 나타내는 70 개 언어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미드라쉬 출애굽기 라바 5:9).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초자연적 언어를 받았고 이것은 다른 언어로 들렸는데 (행 2:5~11 에 나열된 바 최소 15 개), 세계 열방을 상징합니다.

샤부웃에 명하신 소제와 관련된 또 다른 유대 전통은 밤새 깨어 **룻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겐 이 이야기가 분명히 **한 새 사람, 하나님의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진 모습을 가리켜줍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전 세계적 규모로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대의 키부츠 운동에서는 샤부웃을 “거룩한 날/성일”로 받아들였습니다(초대 키부츠족들은 대부분 반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퍼레이드와 농작물의 “첫 열매”를 기뻐하고 가족 만찬을 나누며, 포크 댄스를 추고 새로운 상업적 발명까지 있는 국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세키나^{קִינָה} 즉 하나님의 영광의 내주하시는 임재는 3 단계로 발전됩니다. 첫 단계는 시나이로 상징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이 가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둘째 단계는 솔로몬 성전으로, 봉헌식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왕상 8:10, 대하 5:13, 7:1).

3 단계는 제자들에게 부여된 샤부웃-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3 단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출애굽 상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2. 예루살렘 성전의 구름과 불
3.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

여기서부터 새 언약은 메시아의 몸 된 우리가 산 돌로 지어진 영적 성전이라는 비유를 발전시킵니다(엡 2:21~22, 뻬전 2:5).

성령의 내주하심은 광야의 기둥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그리고 제자들의 심령에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또 다른 단계, 미래에 다가올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사도행전 2:17 에서 약속된 바 “모든 육체” 위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샤부웃-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급히” 있기를 바랐던 것처럼(행 20:16), 저희도 매년 이 거룩한 날에 마지막 때의 지구적 부으심이 “급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데에 헌신합니다.

I.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타냐후 수상의 CBS 방송 인터뷰〉

네타냐후 총리가 16 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 사태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는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당장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으며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도발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오래 걸리지는 않길 바라며, 우리는 질서와 평온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하마스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마스의 테러 능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팔 상황 업데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가자지구의 로켓 공격으로 확대되며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10 일 저녁 이후 3,000 여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 2014 년 가자 전쟁 이후 가장 큰 충돌이다. 현재까지 군인 1 명을 포함해 이스라엘 시민 10 명이 사망하고, 500 여 명이 부상 당했다.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 하마스 거점을 1,180 곳 넘게 공습해 총 198 명이 사망하고, 1,300 명이 부상 당했다.

• 21.05.17 월요일

가자지구 공격 : 아쉬도드 주거 건물에 로켓이 떨어져 이스라엘 시민 8 명 부상. 로켓 파편이 이스라엘 차량훼손
이스라엘 보복 공습 : 후삼 아부 할비드 이슬라믹 지하드 사령관 암살

• 21.05.16 일요일 현지시각 21:00

가자지구 공격 : 총 3,00 여 발 로켓 발사. 이스라엘 남부 도시 공격. 건물과 차 수십대 손상/ 인명피해 없음
이스라엘 보복 공습 : 하마스 내부 보안 서비스 본부 및 이슬라믹 지하드에 속한 로켓 발사 장소 공격
이스라엘 안보 내각 회의 “휴전 아직 고려 안해”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 차량 돌진 테러로 이스라엘 경찰 7 명 부상. 팔레스타인 남성이 임시 검문소를 향해 돌진했고 경찰에 의해 사살 당해

• 21.05.15 토요일 현지시각 21:00

가자지구 공격 : 총 2,300 여 발 로켓 발사. 텔아비브, 브엘세바 등 이스라엘 중남부 주요 도시들 향해 공격 계속돼

오후 2 시경, 라맛 간에 로켓 두 발이 떨어져 건물 다섯 채 파손. 50 대 남성 한 명 사망 (10 번째 사망자)
이스라엘군 보복 공습 : 하마스 테러 거점 총 800 곳 공습. 금요일 이후 하마스 고위 간부 자택 6 곳 추가. 공습. 가자지구 내 AP 통신 등 외신기자 거주 건물 파괴

• 21.05.14 금요일 현지시각 09:00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 조직이 로켓 3 발 발사. 이스라엘 북부 바다에 떨어짐

가자지구 공격 : 목요일 밤 사이 12 시간 동안 190 발 발사.

87 세 노인이 방공호로 대피하다 중상을 입은 후 사망.

이스라엘군 보복 공습 : 목요일 밤 사이 하마스 테러 거점 150 곳 공습. 대전차 미사일 거점 총 7 개 공습.
하마스 사이버 요원 거주중인 건물 두 채 공습. 가자 내 119 명 사망, 600 명 부상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하려다 철회.

[1]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10 일 월요일 저녁 예루살렘 데이 깃발 행진 중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향해 발사한 7 발의 로켓이 선전포고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3,150 발이 넘는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중부 도시들, 텔아비브까지로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180 곳이 넘는 테러 거점들을 폭격했지만, 로켓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사망자는 197 명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국제 언론들의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매인 미디어에서 잘 보도되지 않는 점 하나는, 가자에서 쏘아 올린 로켓 중 1/5 정도가 이스라엘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가자 내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또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로 집계됩니다.**

2014 년 가자 전쟁 때에는 7 주에 걸쳐 4,500 개가 넘는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온 것에 비해, 이번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로켓이 날아왔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있는 도시를 겨냥하고 있어, 아이언돔 요격율이 90%임에도 불구하고, 몇 분 사이에 130 발 넘게 날아오는 로켓을 다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로 인해 수십 채의 집들이 파괴되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또 다른 점은 하마스 로켓의 탄두가 커지고, 강화된 점입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 보다, 이스라엘 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는 것은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의 폭동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로드, 옴바, 밧 얌, 디베라, 악고** 등에서 아랍 폭도들이 유대인을 폭행하고, 민족주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아랍 상점을 타겟으로 하여 아랍 사람들을 폭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해서 살던 이웃들이 하루 아침에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 서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유혈 사태에서 유대인 정치 리더들은 폭력 사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아랍 정치 리더는 폭력 사태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시 121:1~8]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테러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마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공정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분별한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막아 주옵소서.

- ☆ 주님 친히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 간의 폭동 상황을 다스려 주시며, 미움과 분노, 보복과 폭력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 ☆ 군사 작전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군에게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전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폭력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작전 중인 이스라엘 경찰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시 122:6). 아멘!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사 31:5). 아멘!

- ☆ 평강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왕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의 때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루살렘에서 전쟁의 소리가 커질수록 열방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소리가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⁴¹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⁴²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눅 19:41~42).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21). 아멘!

- ☆ 샬롬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목마른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 ☆ 지금의 전쟁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팔레스타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롬 16:20).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아멘!

- ☆ 성령 하나님! 하마스 가운데 있는 테러의 악한 영을 오순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가자지구의 어둠의 악한 영을 오순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바람! 가자지구에 불게 하옵소서.

☆ 하마스 통치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덮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을 오순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 오순절 성령의 새 바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불게 하옵소서.

“¹⁶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¹⁷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¹⁸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6~18). 아멘!

☆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찢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안에서 원수된 마음들이 소멸되게 하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아랍인이 한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2]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라피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5명의 아랍계 크네셋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것과 7석의 의원을 갖고 있는 야미나 당의 나프탈리 베넷의 지지를 얻어 63석의 의원 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나프탈리 베넷이 총리직을 2년 맡고 라피드가 외무부 장관을 맡으며 그 다음 2년에는 라피드가 총리 직을 베넷이 외무부 장관을 맡는 협상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살아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이어 4번의 총선을 치르고도 연립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 **현 리블린 대통령의 임기가 7월에 만료되며, 6월 2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은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15).

☆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19로 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시온아 여호와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시 146:10). 아멘!

☆ **5월 12일 국방 장관 베니 간츠는 현재의 준 전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비상 경제위원회 구성을 명령하였습니다. 간츠가 비상 경제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국가 경제를 통제하며 전쟁 중에 필요한 중요한 품목과 서비스를 이스라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문제로 어려워진 경제가 이번 사태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비상 경제위원회에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3]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테러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 ☆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켜 주시며, 이란의 핵문제가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 ☆ 이스라엘을 향한 주변국의 위협과 테러, 사이버 공격들이 무력화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중동이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이슬람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시와 추방, 괴롭힘과 박해를 하늘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 EU 이-팔탈 휴전 성명, 헝가리 “우린 이스라엘 편”

유럽연합(EU) 26 개 회원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헝가리는 빠졌다. 성명이 팔레스타인에 일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8 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 외무장관 화상회의 후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휴전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렐 대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하고 이 일이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해 온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성명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EU의 성명이 팔레스타인에 일방적이라고 비난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인들의 성명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것들은 매우 일방적이다. 긴장이 고조된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성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팔탈 분쟁 두고 처음 갈라진 이슬람권...이스라엘 규탄 vs 침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분쟁을 두고 이슬람권이 사상 처음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17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국가는 터키와 이란 정도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인권침해로 규정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연이어 통화하며 이스라엘 압박 전화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는 전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전화로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이슬람권 국가들이 연대해 이스라엘의 공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은 이전과 달리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작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가디언은 UAE와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신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분쟁 관련 기사가 실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그러려는 움직임은 보인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UAE와 바레인,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주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팔레스타인 구호인 '팔레스타인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Palestine is not my cause)를 해시태그로 단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mk.co.kr/news/world>

● 하마스 지하터널 100km 파괴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투기 54 대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의 하마스 지하터널 등에 110 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4 일에는 전투기 160 대를 동시에 띄워 하마스의 지하터널에 맹폭을 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 지하 터널을 공습 때 대피소로 쓰기도 하고 무기 저장과 운반용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터널 이외에도 하마스 하마스 연계된 무장단체 사령관 등의 자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무장단체인 이슬라믹지하드의 가자 북부지역 사령관인 후삼 아부 하비드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II. 이스라엘의 회복과 긍휼을 위해 기도 하라

[1] 열방에 남아 있는 모든 유대인의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⁵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지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⁶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⁷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5~7)

- ☆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대로를 열어 주시며,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 ☆ 예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도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법이 개정되게 하옵소서. 믿는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이스라엘내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 ☆ 유대인 귀환 사역을 섬기는 에벤에셀, 쥬이시 에이전시, 네페쉬 베네페쉬, 샤베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2]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알리야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샤베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내무부가 회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에 알리야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인도의 므낫세 후손 548 명을 즉각 알리야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548,000 달러(약 6 억 원)의 재정도 필요합니다.

- ☆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는 일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지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진행 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3]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축복합니다.

- ☆ 능력의 하나님! 이방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며 같이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 ☆ 사랑의 하나님! 반유대주의와 고난 가운데 있는 열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러시아의 유대인 자치주에 있는 유대인들, 구소련 지역의 가난한 유대인들, 에티오피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 ☆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귀환이 끝이 아니라, 귀환하여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름진 곡식을 얻고, 그들의 심령은 물 댄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들처럼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 ☆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역사적, 감정적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고령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며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아파트헤이트



영향력 있는 진보성향의 Alexandria Ocasio-Cortez(민주당 소속 의원), 이스라엘을 ‘아파트헤이트 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Ocasio-Cortez는 2018년 의회에 합류한 이후 줄곧 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정책을 여실히 비판해 왔습니다.

아파트헤이트(Apartheid)라 함은 아프리카언어로 ‘분리’라는 뜻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수 백인과 다수 유색인종의 관계를 지배했던 정책을 말합니다. 아파트헤이트는 유색인종에게 불리한 인종분리와 정치 및 경제면에서의 차별대우를 인정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비평가들이 이 용어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 이스라엘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민주당 하원에서는 두 파로 나뉘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디베이트를 열었습니다.

Debbie Wasserman Schultz, Ted Deutch, Josh Gottheimer, Elaine Luria, Brad Schneider, Brad Sherman, Kathy Manning, Jim Costa 및 Lois Frankel-각각은 이스라엘의 자신을 방어 할 권리에 대해 1분 연설을 했고 그 후, 11명의 민주당 의원 Ocasio-Cortez, Tlaib, Omar, Mark Pocan, Betty McCollum, Ayanna Pressley, Cori Bush, Jan Schakowsky, Jesús García, André Carson, Joaquín Castro 의원 그룹이 총 1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Alexandria Ocasio-Cortez는 트위터를 이용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양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불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AOC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존할 권리가 있습니까?”

반유대적 공격에 대비하는 유럽 유대인

2014년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있었을 때,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반유대주의 폭력의 물결을 일어났습니다. 이번 이-팔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유럽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또다시 반유대주의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쌓여 있습니다.

2014년에는 친 팔레스타인과 무슬림 청년들이 파리에 있는 유대 회당을 포위하거나 폭력을 행사했고 12개의 회당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파리 교외의 Sarcelles에서 폭도들은 유대인 소유의 여러 사업체의 창문을 부수고 일부는 홀로코스트를 예고 한 1938년 포그롬(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난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과 학살을 이르는 말)인 Kristallnacht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미 현재의 적대 행위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두 개의 독일 회당 밖에서 어떤 이들이 이스라엘 국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서독의 쾰른 키르헨시에서 약 200명의 사람들이 수요일에 지역 회당을 향해 행진하여 “똥 같은 유대인”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료 팔레스타인”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낙서들이 스페인의 다른 회당에도 스프레이로 칠해졌습니다.

런던에서 친 이스라엘 운동가는 이번 이-팔 사태 향의 시위대들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를 차였습니다.

한편, 유대인 및 비 유대인 표적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는 이슬람 활동의 물결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그들은 파리에서 계획된 ‘이-팔 분쟁’을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허가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친 팔레스타인 운동가인 베르트랑 하일브론은 허기없이 시위를 주선 하려다 수요일 밤에 잠깐 구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III.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눅 19:41). 아멘!

[1] 이스라엘 온 땅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⁴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⁵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 1:4~5). 아멘!

“¹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²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³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⁴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아멘!

성령님! 이스라엘 땅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영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스라엘 땅에 불로 임하셔서
모든 절망과 저주와 악한 영들을 태워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예루살렘에 임하시며, 성전산 위에 임하옵소서.
올드시티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유대인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막같은 영혼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 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며 재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영적 부흥을 주옵시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며,
함께 바룩하바 배셈 아도나이 ! 파라나타!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2]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 ☆ 구원의 하나님! 선교의 완성지인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2천 년 전 나무에 달린 예수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과 생각으로 무조건 외면해 왔었지만 이제는 예수아가 온 세상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고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 ☆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 ☆ 이사야 53 장의 말씀이 유대인들에 열리게 하옵소서. 랍비, 정통 유대인, 군인들과 청년들,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 장을 읽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사야 53 장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 ☆ 올드시티를 덮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영이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통곡의 벽에 쌓인 슬픔과 애통이 떠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 ☆ 주님! 예루살렘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양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통 유대인, 세속 유대인,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류와 연합,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합니다(선포기도/대적기도/축복기도/침묵기도 등)

(사 62:10~12) ¹⁰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¹¹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¹²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2] 메시아닉 주와 교회와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 메시아닉 주와 교회 위에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금년 오순절에 기도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사역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기사와 이적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수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 ☆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초대 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국적으로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 ☆ 공황 사역을 펼치고 있는 메시아닉 주 교회들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예수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 ☆ 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믿는 유대인들을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 ☆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이 네트워크로 연합하여 마지막 때 대 추수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 메시아닉 주 자녀들을 축복해주시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정통 유대인들을 열방 교회 성도들이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 믿는 유대인 단체를 위한 기도 -

- KRM, Joy Jerusalem, Love153, Negev Yahad, 리손레찌온/하이파/나사렛 지역의 새벽기도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인 교회와 사역자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사역자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 믿는 유대인 교회와 사역자를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 Revive Israel 의 기도와 전도사역, 제자훈련사역, 구제사역 가운데 기름부어 주옵소서.
 - 예루살렘의 아하발 예슈아 공동체와 텔아비브의 티페렛 예슈아 공동체가 부흥케 하옵소서.
 - OFI(One for Israel)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ICB(Israel College of the Bible)를 통해서 많은 영적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FOZ 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
- 왕이신 하나님! 왕의 백성들이 왕의 도성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왕의 귀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바룩하바! 마라나타!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 23:39). 아멘!

사보복

출 23:16 / 34:22-23

¹⁶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²²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²³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찌라

5 월 16 일 저녁부터 오순절이었습니다.

칠칠절은 밀과 보리의 첫 곡식을 수확해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맥추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로 불린다(출 23:16). 칠칠절은 초실절 이후 50 일째 되는 날에 지켜진 이유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신 16:9~12).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로 지켜졌으며, 태양력으로는 5 월말 내지 6 월초에 해당된다.

칠칠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이 금지됐으며(레 23:21, 민 28:16), 고운 가루 에바 2/10 에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두개의 소제를 요제로 흔들며 하나님께 바쳤다(레 23:15~17). 또한 일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젊은 수소 한 마리(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또는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레 23:8, 민 28:28~29). 그리고 이 절기는 하루에 행해졌다.

칠칠절은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며, A. D. 70 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특별히 시내산 율법 수여를 기념한다는 의미가 부가됐다. 또한 초대 교회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단순한 추수제가 아니라 성령강림제로 지켜졌다.

오순절 축복, 곧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예시하며(행 2:1~4),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떡을 소제로 바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성도를 상징한다(빌 1:22~24). 오순절에 바치는 떡 두 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으로 본다.

<칠칠절, 맥추절>
(출 34:22; 신 16:10)

שבועות <사부오트> : 한 주간(a Week)를 나타내는 '사부아'의 복수



오멜은 성경에 6 번이나 나오지만 모두 광야의 만나 사건에만 등장한다. 하루 만나의 양이 한 오멜이었다. 원 뜻은 '보리 한 묶음'이다. 1 오멜은 10 분의 1 에바(출 16:36)

• 유월절 어린양 Yeshua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요한복음 19 장 14 절에 기록된 유월절 준비기간은 히브리 음력달력의 니산(Nisan) 14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어린양은 니산 14 일에 3 시에서 5 시 사이에 잡아서, 그날 밤 12 시 이전까지 먹어야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 율법의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형식을 취하여서, 예루살렘에 니산 10 일에 입성하시고 니산 14 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침내 오후 3 시에 돌아가십니다.

• 초실절 Yeshua 의 부활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금요일 오후 3 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 후, 주일에 부활하시는데 이 날은 초실절의 예물을 드리는 시각입니다.

(레 23:15-16)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16]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함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유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동이 트면 사람들은 처음 수확한 보리 한 오멜을 성전에 가지고 간다.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올리며 요제로 드린다.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다. 첫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행할 모든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모든 수확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

• 사부오트(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 시반월 5 일 해가 진 후부터 6 일 해가 지기 전 하루/(이스라엘 밖) 7 일 해가 질 때까지 이들



유대인들은 이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 일주일이 7 일이니 7X7 49 일을 세어나간다(오멜 카운트). 그리고 50 번째 날이 오순절인데, 유대인들은 이 날 추수한 밀을 성전으로 가져가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부터 오멜을 세는 것은 오순절의 풍성한 수확을 바랬기 때문이다.

• 사부오트의 다른 이름

1. 첫 열매의 날(욘 하비쿠림: 민 28:26)
2. 수확의 휴일(하카찌르) :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들, 즉 밀 등의 농사 수확
3. 성회(에제레트):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일 것(민 28:26)
4. 우리의 율법을 주는 시간(즈만 마탄 토라테이누) : 토라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것

• 사부오트 기념: 흰 옷을 입고 7 가지 곡식과 열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치즈와 버터 같은 유제품 그리고 꿀을 섞어 만든 과자나 치즈케익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
룻기나 시편 전체 읽기

☆ **이스라엘 7대 작물** :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 8:8]

- 두 가지 곡식: 밀, 보리
- 5 가지 열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꿀은 대추나무 열매)

“**오멜 카운팅을 하는 7 주간은 밀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풍성히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셔서 수확을 하게 하신 것이다.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 11:12,16-17]

• **오순절 < 토라를 받은 날 >**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출애굽을 하면서 정확히 50 일 후에 토라가 주어질 것에 대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구원 이후 자신들에게 주실 토라를 열망하며 날짜를 카운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토라는 받는 날을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이 신부로서 결혼한 날이며 그 언약 증서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유월절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있었던 오순절까지 날짜를 세며 다시금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결혼언약).

•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행 1:4-5)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 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취 되었습니다.

(행 2:16-17)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순절의 축복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었고, 영적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기독교: 부활절 이후 50 일을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부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으며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이번 절기를 통해, 젃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2.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이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3. 하마스 로켓불이 아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온 땅을 덮게 하옵소서.
4.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이 세워지도록

[선포 기도]

유대인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1.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폭력과 폭동과 살상은 즉시 그치고 정상을 회복할지어다!
2. 이스라엘을 향해 사실을 왜곡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열방의 모든 세력들은 스스로 붕괴될지어다!
3.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동성 결혼과 낙태와 우상은 모두 제거될지어다!
4. 이스라엘의 정부 구성을 방해하고 세속화하려는 모든 세력은 분열하여 붕괴될지어다!
5.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의 계획은 모두 무산될지어다!
6.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6 백만 유대인은 모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어다!
7. 유럽 유대인은 반유대주의가 다시 거칠게 일어나는 것을 보며 알리야를 서두를지어다!
8.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구권에서 유대인 알리야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지어다!
9. 열방의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약속의 그 땅으로 속히 알리야 할지어다!
10. 열방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어다!
11.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는 큰 재정으로 유대인 알리야에 참여할지어다!
12. 오순절을 기해 초대 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충만할지어다!
13. 메시아닉 쥬 교회마다 성령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충만할지어다!
14. 정통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고 메시아 예수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15. 이스라엘 새 세대는 전통과 편견에서 벗어나 메시아 예수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16. 열방의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힘써 섬길지어다!
17. 믿는 유대인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메시아 예수아를 증거할지어다!
18.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아를 발견하게 될지어다!
19. 온 이스라엘 구원의 비밀이 열방 모든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아멘!
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매일 24 시간 잠잠치 말고 쉬지 말고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아멘!



<p>김목사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or opening of the new 100 Churches in the cities of Israel and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of Israel. 2. For opening of the new 3 Churches in the cities of Israel 3. For 6 churches in the cities 4. For Israel Spiritual Seminary: remodeling of the premises and equipment for the students (desks, chairs, cabinets, board, beds and etc.); 5. For 29 students who study in Seminary;
<p>유목사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스라엘 도시들(Acre, Haifa, Netanya, Ashkelon, Sderot)의 셀 리더들을 위해 2. 이스라엘 각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p>주목사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못하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야(예수님)임을 깨닫고, 믿도록. 2. 최근 몇 년 동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그 사실을 나타내면 가정과 사회에서 양파를 당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 홀로" 믿는 사람들과 랍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참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3. 참된 아랍 기독교인들의 총명한 수가 되도록/ 많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p>장목사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일 가정의 영적 제단과 개개인의 영적 제단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셔서, 자를 향한 부름의 상을 좇아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2. 정기 사역가운데 주님의 기름부으심과 성령충만을 위해: 3.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한 상황 가운데 성령충만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4. 준비된 유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 셀 모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5. 현재 섬기는 유대인 공동체 Shemen Sasson(Pastor Yonatan)에 영적 돌파와 부흥을 허락 하옵소서.